

“1인 미디어 지원 체계 마련해야”

전북연구원, 발굴부터 교육·제작·창업까지 이어진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전북도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동영상 제작과 공유의 기술장벽이 완화된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북의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이소브리핑 '전라북도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에서 1인 미디어 발굴부터 교육, 제작, 창업까지 이어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우선 공모전을 통한 1인 미디어 발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과

정부가 추진하는 '전라권 1인 미디어 공모전'을 전북으로 유치하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자체 공모전을 개최하여 1인 미디어를 통해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1인 미디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전문 교육과정과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장르별 1인 미디어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이외에, 연구원은 발굴된 1인 미디어를 위한 창작공간인 '1인 미디어 팩토리'를 제시했다. 이는 1인 미디어

에게 스튜디오와 촬영, 편집 등 제작장비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1인 미디어를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과 출연, 촬영, 편집, 법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1인 미디어 환경에서 5인 이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현실적 창업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최은규 부연구위원은 "전북도는 전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며 "이러한 매력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훈련 점검
지난 15일 조영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 열어, 기관별 준비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겨울철 대설·한파에 불편 최소화 '총력'

최근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체감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협력기관과 함께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올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태풍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 겨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특별 시책담당자를 통한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운열의자와 방풍시설 115개소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간 기상정보와 위험지역 등에 설치된 CCTV 다채널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관리를 할 계획이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시설, 산악마을 고립지역,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 등에 대한 책임자를 복수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하고 도로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기간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제설차량구입 중 순창군 동계면 지방도

717호선과 고창군 고창읍 국지도 15호선, 부안군 진서면 지방도 736호선 3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밖에 한파에 대비해서도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45,464명을 재난도우미 11,531명으로 전화·방문 안부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고 한파피해 4,916개소를 운영하여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재난취약지역 주민 또는 재난취약계층을 한파피해로 안내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대책기간이 본격 접어들어서 그동안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께서도 평소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폭설시 내집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온 힘

발생 위험도가 사육제한 실시

전북도가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시기를 맞아 군(35사단)과 경찰과 공조해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35사단)은 제독차량 2대를 동원해 매주 2회 만경강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경찰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도내 거점소독시설 34개소에 축산차량 증가시간(08:00~10:00, 14:00~16:00)등

안 매일 2회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 금강, 김제 만경강, 부안 동진강, 고창 동립저수지, 부안 조류지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19대와 살수차(도로 소독차량) 5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들 방역활동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 48호 788천수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사육제한 중에 있

고, 이들에 대해서는 2,325백만원에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겨울철새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현장 방역점검 및 민간군 협업 강화 등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닭·오리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키다'는 자세로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출어선 증가 및 해상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겨울철 조업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지도도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지도는 어선과 낚시어선 74척(군산시50, 고창군4, 부안군20)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고건수가 많은 5~10톤 어선,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합동점검·지도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시·군, 군산·부안해양경찰서,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전북지사,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배전반, 전선, 모터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들이 규정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

승객명부 비치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신고확인증 및 안전성검사 여부 ▲구명조끼 비치 및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 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진 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이번 가을·겨울철 합동안전점검·지도도를 계기로 어선안전에 대한 의식이 한층 개선되고,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항상 안전점검을 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대안신당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는 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날 대회에서는 당명과 발기취지문 및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창당추진위원회는 "발기인대회에서 창

당준비위원장으로 유성엽(정음·고창) 대표를 선출하고 신당의 당명은 '대안신당'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채택할 창당발기 취지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지역, 세대, 성별,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진 기획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 개선 등의 창당 취지를 밝혔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하고자 한다"는 결의와 함께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 정치,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정치에 매진해 대안신당이 새로운 정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창조센터-언더독스-군산시 청년들, 창업지원 협약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는 지난 15일 군산 상공회의소에 위치한 군산시 청년들에서 언더독스 주식회사,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와 함께 지역의 소셜벤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소셜벤처 기업 발

굴·육성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협약기관 간 소셜벤처 창업 및 육성지원 ▲로컬라이징 군산 육성 포럼, 교육 및 홍보지원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등이 있다.

박광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욱 군산시 청년센터장은 "군산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센터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터키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유현



강사: 김양욱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일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일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주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